

## 본당 소식

###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주신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기리며 미사에 참여합니다.

### ♣ 기도해주세요.

- 그동안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밀라노 한인성당이 신앙 공동체로 거듭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해주신 김재의 미카엘, 김지선 소피아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 갑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 안에서 늘 서로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 ♣ 모임/회의

- 성모회 회의 : 6월 22일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63.30€
- 교무금 1,050.00€

###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박건욱 레오

### 전례 성가

- 입당 : 163 (생명의 성체여)
- 봉헌 : 256 (천상의 어머니)
- 성체 : 156 (주의 잔치)
-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 :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특송 : 윤선재 가우디아

### 전례 봉사

이번 주일(6월 15일)	다음 주일(6월 29일)
1독서: 박건욱 레오	1독서: 안희관 요셉
2독서: 이소현 엠마	2독서: 이경진 카타리나
복 사: 변가인 헬레나, 정아인 레나	복 사: 안태오 마태오, 문수빈 미카엘라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6월 22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미사 전례

#### 본기도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화답송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뺏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덕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 로다.” ◎

#### 제1독서 (창세기 14,18-20)

그 무렵 18 살렘 임금 멜키체덕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19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20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1,23-26)

형제 여러분, 23 나는 주님께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24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5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6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속가**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24.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루카 9,11ㄴ-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11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십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16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정치인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어,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호소를 들으며 힘보다 사랑을, 전쟁보다 평화를, 무기보다 인도적 지원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3.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 특별히 6·25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기억하며 비오니,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미움과 분열이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4.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남과 북으로 분단된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시어, 반쪽뿐인 평화의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찾으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우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